

코로나19 가을에 더 세지나... 아직 미지수

전문가들 ‘스페인독감’ 가을 재유행... 대비 필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활동 일상화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가을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성이 줄어들었던 바이러스가 가을철 다시 활발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변이가 생기면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서는 호흡기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존재한다면 가을철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가을 재유행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1918년 벌어진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른바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든다.

당시 스페인 독감은 늦봄에 시작해 여름에 잠시 소강하나 싶더니 가을철에는 더 세졌다. 오명돈 서울대의대 교수는 “스페인 독감은 (봄에 벌어진) 1차 유행보다 그해 가을철에 (환자 발생이) 5배나 더 큰 2차 유행으로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도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여름에 잠시 유행이 잦아들었다가 가을에 다시 찾아와 더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활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2~2003년 중국에서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기온이 오른 뒤 수 개월간의 유행이 그쳤다. 코로나19와 사스는 유전적으로 80% 정도 유사해 유행 패턴이 비슷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단 코로나19가 가을철 다시 유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이가 일어나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바이러스 변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을철까지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변이 정도는 작을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바이러스의 변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나 전파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심각한 변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가을에 재유행한다고 해서 더 치명적으로 변이한다고 예측할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을까지 코로나19 전파 자체가 아예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활동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가을철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코로나19는 여름에 조금 소강할 순 있어도 유행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상화된 감염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가을이 오기 전에 유행이 더 크게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발열 체크 시작

방문객·상인 불안감 해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24일부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발열검사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매일 방역소독과 함께 상인회에서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왔지만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대

비해 발열 체크에 나서는 것이다. 검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발열검사대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해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검사로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열검사에서 37.5℃ 이상인 이용객은 증상 유무를 파악해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시장 이용 자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새로운 변수 ‘해외유입 차단’ 비상

22일 유럽발입국자 19명 확인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총 144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전원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2주간 능동 감시를 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의 80~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혈액 수급난에 소매 견여불인 스님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스님들이 24일 서울 조계사의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 총 124명
치매환자 비중 27.4% 차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13명이 추가돼 총 124명으로 늘어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료 수집 결과 하루 새 13명의 사망자가 늘어나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24명 발생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사망자 124명 중 치매환자가 34명이었고, 전체 사망자 중 27.4% 정도를 차지한다”며 “전체 확진자 중 기저질환자 비중 등은 분석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 연령대별 분포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와 관련한 비율은 56%이고, 신천지 신도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신천지 아닌 환자 44%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전체 인구구조 중 20대 비율(13.1%)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내달 시작해 내년 완료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달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순 보

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역 지방도 및 시도 구간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1년~2025년까지 5년으로, 목표연도를 2025년도로 설정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보도현황 및 지장물 실태조사 ▷보도공사 및 정비시행에 관한사항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사항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보도자재의 재활용계획 수립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 확대

폭염과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에너지인증을 포함)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등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최대 1200만원까지 설치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2).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세상의 모든 이벤트



- 축제/ 기획/ 진행/
- 기업행사(준공/기공식/팀빌딩)
- 레크리에이션 ·단합대회 ·체육대회
- 교육기관 행사 ·컨퍼런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표 진 두 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상로 188
T.(064)755-1119 F.0303-3443-5004 H.010-8774-5005